

8일 Market Index			
↓ 코스피	2431.91	↓ 코스닥	813.95
	(-31.44)		(-1.81)
↑ 금리 (미국 9년)	3.855	↑ 환율	1321.40
	(+1.129)		(+22.00)

구독료: 월 20,000원 / 1부 1,000원 등록번호 서울 가50111 독자센터 (02)721-9841

매일 아침, 나를 키우는 메트로

2023년 3월 9일 목요일

Sync to You, Open to All

2023 LG TV 신제품 발표회

[경제종합]

LG전자 TV 신제품

10년 노하우 총 집약

OLED 한계 극복

03 LG TV 신제품



문과생 취업 바늘구멍... 채용인원 70% 이공계생 뽑아

더 팍팍해진 취업시장

매출 500대 기업 절반 이상은 상반기 신규채용 계획 없어
채용시 67.5% ‘이공계생’ 모집
대입 이어 취업도 ‘이과’ 선호

대학입시에 이어 취업 시장에서도 ‘이과 선호’가 높아지면서 문과생들이 사면초가에 몰리고 있다. 인문계열 졸업자들은 전공과 깊은 관련이 없더라도 기업의 니즈를 맞추고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기업들, 뚜렷한 이과 선호... 문과생은 ‘아등바등’

“취업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대학원 진학을 결정했어요.”

한국외대 졸업을 앞두고 있는 송모(27)씨는 “문과생들의 능력치가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이공계 인재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과 선호 현상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대학원을 진학하기로 마음먹었다. 석·박사급의 고급 인재가 됐을 경우, 경쟁률이



서울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가 일자리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시스

다소 줄어들기 때문에 지식을 쌓아 몸값을 올리겠다는 의미다.

반면, 공대 졸업을 앞둔 정모(25)씨는 한결 여유로운 모습이다. 그는 “지금엔 창업(스타트업)을 준비하고 있고, 잘못되더라도 컴퓨터 공학이라는 전공을 살려 취업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막막하지는 않다”며 “다만 경제 불황에 따라 투자 시장이 위축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창업을 시작하는 게 맞나라는 불안감은 있다”고 답했다.

8일 취업 시장에 따르면 올해 채용

부진과 이공계 선호 현상이 맞물리면 서 문과생들의 취업길은 더욱 좁아졌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여론조사기관리서치앤리서치에의뢰해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 상반기 신규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대졸 신규채용 계획 인원 10명 중 7명(67.5%)은 ‘이공계열’ 졸업자 자리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반적으로 신규 채용을 하지 않거나 기존 채용 규모를 유지하는 기업도 늘어나고 있다. 조사대상 중 대기업의 절반 이상(54.8%)은 올해 상반기 신규 채용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거나, 채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대기업 역시 공채보다는 수시 채용을 활발히 진행하는 모습으로 경영 불확실성의 증가, 경기 침체 장기화 조짐에 따라 고용 불안정은 지속될 전망이다.

커리어매칭 플랫폼 사람인HR 관계자는 “2022년 사람의인 직무별 공고(수요) 대비 지원자수(공급) 충원율을

보면, IT개발·데이터 직무가 41.8%로 가장 지원자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디지털 전환과 산업구조 변화로 IT, 반도체, 2차전지 등 이공계 전문 지식기술이 필요한 직무 수요는 꾸준히 늘어나는 반면, 사무자동화로 인해 문과직무는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구직자들도 이런 분위기를 체감하고 있다. 실제로 2021년 말 사람이인 신입 구직자 79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인문·사회계열 구직자는 절반(49.8%)이 본인의 전공을 후회한다고 답한 반면 IT·공학계열과 이·화학계열은 각각 30.7%, 32.4%에 그쳐 격차가 컸다.

청년층의 고용 침체 분위기와 더불어 이과 선호 흐름까지 겹쳐 문과생들의 취업 이중고를 타개하는 뾰족한 대책이 요구된다. 우스갯소리로 나오던 ‘문송합니다’라는 말이 현실화되는 셈이다.

〈2면에 계속〉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긴축효과 못 느껴” 파월 ‘빅스텝’ 예고 韓 금리 더 오르나



“긴축정책의 효과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최종 금리수준은 이전에 전망했던 것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사진)은 지난 7일(현지시각) 연방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반기 통화정책을 보고하며 이같이 말했다. 연준은 2022년 3월부터 1년간 기준금리를 0.00~0.25%에서 4.50~4.75%로 상단기준 4.5%포인트(p) 인상했다. 기준금리 인상 효과를 보기 위해 지난 2월 금리인상폭을 0.25%p로 낮췄지만 경제지표에 변동이 없어 기준금리 인상폭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美 연준 의장 통화정책 보고
22일 0.5%p 금리인상 가능성
최종금리 6%까지 오를수도
금리차 우려에 한은, 고민 ↑

◆미국, 최종금리 6% 전망

경제지표를 살펴보면 1월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는 299.17로 1년전과 비교해 6.4% 올랐다. 지난해 6월 9.1%를 기록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9월 8.2%, 12월 6.5%까지 내려왔다. 소비자물가지수를 낮추기 위해 1년간 금리를 4.5%p 인상했지만 눈에 띄게 잡히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파월 연준 의장은 “불과 한달 전 (인플레이션이) 완화된 추세가 1월 경제지표에서 부분적으로 역전했다”며 “이러한 결과는 우리가 충분히 긴축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더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2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0.5%p 인상할 가능성은 더 커졌다. 시카고 페드워치를 보면 연준이 기준금리를 0.5%p 인상할 것이라는 가능성에 69.8%가 몰렸다.

최종금리도 높아질 전망이다. 파월 연준 의장은 “물가가 안정을 회복하려면 당분간 제한적으로 통화정책기조가 이어져야 한다”며 “최종적인 금리가 통화정책 입안자들이 이전에 전망했던 것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3면에 계속〉

/나유리 기자 yul115@

與 신임대표에 김기현 “오로지 민생만 보겠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득표율 52.93%로 과반 넘어
“내년 총선 반드시 승리 이끌것”

국민의힘 새 당 대표에 김기현 의원이 선출됐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를 열고, 김기현 의원이 83만7236명 선거인단 가운데 24만4163표(52.93%)로 과반 득표해 당 대표로 당선됐다고 선포했다.

그 뒤를 이어 안철수(10만7803표, 24.37%), 천하람(6만9122표 14.98%), 황교안(4만222표, 8.72%) 후보 순으로 득표했다. 당 대표 경선 투표율은 55.1%를 기록했다.

신임 김기현 당 대표는 “우리는 하나다. 하나로 똘똘 뭉쳐서 내년 총선 압승을 이루자”고 당선 연설을 했다. 이어 “이제 (우리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한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이라며 “당원 동지와 한 몸

이 돼 민생을 살려내고, 내년 총선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포탕(연대·포용·탕평)의 국민의힘을 만들자”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김재원 후보가 16만67표(17.55%)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김병민(14만6798표, 16.1%)·조수진(12만173표, 13.18%)·태영호(11만9표, 13.11%) 후보 순으로 당선됐다. 최고위원 경선 투표율은 54.95%를 기록했다.

청년 최고위원은 장예찬 후보가 25만36표(55.15%)를 얻어 당선됐다. 청년 최고위원 경선 투표율은 54.59%를 기록했다.

이번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는 당원 선거인단 투표 100%로 이뤄졌다. 최종 투표율은 55.1%(83만7236명 중 46만1313명 투표)로, 역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한편 이번 전당대회에는 7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전당대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나라의 위기, 당의 위기를 자신의 정치적 기회로 악용하면 안



김기현 신임 국민의힘 당대표가 8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에 선출된 후 환호하고 있다. /뉴스시스

된다”며 “어떠한 부당한 세력과도 절대 주저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청년 세대를 위한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흔들림 없이 빠르게 추진

하고, 노조 회계 불투명, 산업현장 고용세습, 폭력과 불법에 단호하게 대처하고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 국제관계 역시 빠르게 정상화해야 한다”며 흔들림 없이 국정과제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버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野 외통위원 “강제동원 피해자 모욕, 석동현 즉각 파면”
▲尹대통령 “국민 체감할 과감한 저출산 대책 마련” 지시 (사진 뉴스시)

▲ 이재명 등 지도부, 11일 대일 굴욕외교 규탄 촛불집회 참석
▲ 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이행상황 격주 점검



▲ 이재명, 여성의 날에 “위안부 할머니께 부끄러워…尹, 일에 면죄부” (사진 뉴스시)
▲ 튀르키예 구호대 3진 파견… 1000만 달러 재원